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생의 스트레스 경험

Stress Experiences by Trainees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

심경순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Kyung-Soon Shim(ksshim@cup.ac.kr)

요약

본 연구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생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수련스트레스를 수련생의 입장에서 기술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임상교육의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질적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정신보건수련기관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수련생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포커스그룹으로 1-2회 이루어졌으며, 소요시간은 2시간내외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미있는 진술은 85개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연구자가 구성한 의미는 32개로 도출되었다. 이들 구성된 의미들을 유사한 내용으로 묶고 분류한 결과 9개의 주제가 형성되었으며 4개의 주제묶음으로 범주화되었다. 수련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경험으로는 '대인관계가 어렵다', '수련일정이 빡빡하다', '기관에서 수련생에 대한 배려가 없다', '수련교육에 대한 체계성이 없다'로 4개의 주제묶음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생 | 스트레스 경험 | 질적연구방법 |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research whose purpose was to analyze the experiences of training stress that trainees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 were undergo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trainees, ultimately providing them with a more effective way of clinical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made a survey of 9 trainees who were getting through the training course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provided by a relevant training agency. Data collection were focus group-based and conducted 1 to 2 times over about 2 hours.

This researcher analyzed statements from the participants and, out of them, 85 were determined as meaningful. From these meaningful responses, the researcher constructed 32 meanings. And then, those meaning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imilarities and grouped into 9 themes, and finally categorized into 4 themes.

More specifically, what were stressful to the subjects that they were experiencing in the training course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could be largely categorized into 4 themes, or 'lots of trouble in interpersonal relations', 'too much tightness in training schedule', 'little consideration of them by the training agency', and 'poor organization of the training course'. Considering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training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 keyword : | Mental Health Social Worker | Trainee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 | Stress Experience | Qualitative Research Method |

1. 연구의 필요성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정신보건영역에서는 급격한 환경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병원중심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와 정신보건관련기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확보와 공급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전문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가 마련되었다.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은 199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3년 현재 17기 수련교육과정에 이르고 있다. 수련과정은 이론교육과 임상수련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론교육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의 공동이론교육이 있고, 임상수련과정은 각 수련과정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1].

수련과정은 실천의 장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슈퍼바이저로부터의 지도를 통해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수련생에게는 실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 될 것이며, 기관에서 실천을 행하고 있던 수련생들에게는 국가적,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되는 자격을 소지함과 동시에 좀 더 나은 기술과 지식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2]. 그러므로 수련교육과정은 수련생들의 요구와 능력에 맞게 인적, 물적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수련생들로 하여금 최대한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4].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은 수련생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수련현장에서 실제로 통합하고 적용해봄으로써 수련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전문적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련생들은 수련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련과정은 수련생들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교

육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수련생들로 하여금 최대한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경험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의 공인된 자격을 갖게 함과 동시에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교육과정이 되고 있으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이 10년 동안 실시되고 있는데 비해, 수련교육과정 중에 수련생들이 갖는 어려움과 경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수련생들이 수련현장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관리하여 정신보건수련과정에 임하는 수련생의 스트레스를 가능한 줄임으로써 적절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수련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전문직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양성에 필요한 일이라 사료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에 있는 수련생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수련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의 주관적인 느낌과 경험을 깊이 있는 진술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 질적연구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시도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에서 특히 Colaizzi의 연구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생이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부딪히는 수련스트레스를 수련생의 입장에서 생생하고, 풍부한 진술을 표현하게 하고, 표현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분석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경험을 탐색해봄으로써 수련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대상자들을 집단으로 모아 심층적으로 면접함으로써 주제에 맞게 집중적인 대화를 유도해내는 것으로 연구자와 응답자간의 상호작용과 집단 구성원간의 활발한 상호 피드백을 통해 심층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수련과정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무엇이며, 언제 가장 힘이 드는가?” 즉, “수련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스트레스적인 경험을 하였는가?”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의 목적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clinical training’은 임상훈련 또는 임상수련과정 등의 용어로 혼용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이나 기관에서는 수련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5]의 연구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clinical training’을 실시하는 정신과의사와 임상심리학자들이 ‘임상수련과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통일성 있는 이해를 위해 ‘임상수련과정’이라고 사용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임상수련과정은 임상은 인위적인 실험과 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실제로 환자의 질병을 관찰하고 치료하는 것과 관계되거나 그것에 기초하는 것을 말하며, 수련과정은 교육의 의미보다는 제한된 개념으로 규정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6]이라고 하였다. 즉, 그의 연구에서 의미하는 임상수련과정은 실제 임상현장인 정신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질병을 관찰하고 치료하는 관계된 업무수행능력을 숙달시키고 현장에 근거를 둔 임상적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제시하였다[2][5].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영역에서 다른 전문직들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전문직 수행이 어렵다[7]. 따라서 정신보건영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나 현재의 대학교육과정에 이러한 모든 내용을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신보건 영역의 특수한 정보와 지식, 전문기술을 중심으로 수련교육이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정신보건사회복지 수련과정의 목적은 수련과정을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실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정신보건사회복지에 대한 정체감과 전문직으로서의 자아상을 갖게 해 주며, 실무경험을 터득하게 함으로서 경험적 학습을 시켜 정신보건영역의 지식과 태도, 기술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련생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련기관이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능을 이해하여야 한다. 수련생은 수련기관의 기

능과 역할에 대해 수련과정 전에 학습하고 수련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기능을 어떻게 성취시키고 있는가를 이해한다. 둘째, 수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이며 구체적인 기술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태도를 학습한다. 그리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담당업무의 의의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의 업무에 대한 정열, 의욕, 자세를 배워서 자신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인간적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를 삼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수퍼비전을 통해 정신보건영역의 임상에 대한 기술을 익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와 필요성에 다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신을 깊이 통찰함으로써 자신의 특성을 알고 그와 같은 상태의 자기를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다[8].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은 이론교육과 임상수련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이론교육을 살펴보면 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정신보건사회복지시설협회의 통합교육 형식으로 총 150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2급 이론교육 내용은 정신보건기초 35시간, 사정 및 평가 20시간, 정신의학 25시간, 사회사업 치료 20시간, 정신건강문제 10시간, 사회복지서비스 40시간으로 다학제간 접근으로 효과적인 실천서비스를 위한 실제적 지식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9][10].

둘째,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수련은 수련생들이 정신보건 전반 및 사회사업 실천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직접 실천해봄으로써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임상수련은 정부가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830시간(사회사업 사정 250시간, 사회사업치료 I 100시간, 사회사업치료 II 230시간, 사회사업치료 III 25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가 인준한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하에 30사례를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할 경우 임상실습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하고,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종사할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의 실습시간의 3분의 2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회 보수교육, 협회에서 인정하는 정신보건관련 교육등 학술활동을 20시간을 참여하여야 한다[11].

3. 수련과정의 선행 연구동향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에 관한 몇 편에 불과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임상수련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5],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수련과정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2]와 정신보건 수련사회복지사가 경험한 클라이언트 폭력의 실태[12], 정신보건사회복지 수련과정이 전문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3]가 있다.

먼저 반희량[5]은 정신보건수련제도가 도입되기 전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임상수련의 필요성을 탐구하고 임상수련과 실시에 필요한 기본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타전문직의 임상수련모델,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욕구와 견해, 정신보건사회복지 임상수련제도에 대한 타전문직의 수용성 정도와 그에 대한 견해 등을 파악하여 활용가능한 임상수련의 기본모델을 개발·제시하였다. 즉, 수련과정동안 수련과정비용과 같은 경제적인 부담과 업무과중에 대한 우려와 수련과정 이수 후 취업보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중심 임상수련과정모델을 제시하였다.

[14]의 연구에서 수련생의 수련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이론교육과 임상수련과정, 슈퍼바이저, 수련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수련과정의 만족도는 수련기관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슈퍼바이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련과정동안의 교육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수련과정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업

무활용여부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효과성여부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으로써 수련과정이 정신보건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12]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과정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폭력에 대해 연구하였다. 조사결과로는 첫째, 폭력경험은 70.4%가 수련과정 동안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하였고, 그 중 성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신체적 공격, 기물파손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폭력상황의 특징을 보면 폭력을 행사한 클라이언트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남성이었으며, 발생장소는 주로 병동과 사무실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폭력발생사실을 기관에 보고하였으며, 폭력의 결과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반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 현장에서 수련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3]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수련과정을 중심으로 전문직 태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문직 태도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련환경과 실무 유용성, 조직 사회화의 수퍼비전 관계는 전문직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수련실무교육의 강화와 수퍼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수련과정에서 전문직의 태도에 관한 연구이거나 수련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존연구들이 모두 양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수련현장에서 수련생들이 수련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는 질적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련과정에서 수련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무엇이며, 스트레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적연구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방법

조사대상자는 정신보건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에 있는 수련생으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와 처음 면담 시에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의 보장, 연구도중에 참여자가 원할 때는 언제나 철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면담과 면담 시의 녹음, 연구 결과의 논문 발표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9명이며, 모두 여성이며, 수련지정기관에서 수련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나이	학력	수련기관
1	여	23	대졸	사회복지시설
2	여	24	대졸	정신병원
3	여	25	대졸	정신병원
4	여	24	대졸	대학병원 정신과
5	여	24	대졸	정신병원
6	여	24	대졸	사회복지시설
7	여	25	대학원 재학	사회복지시설
8	여	24	대졸	정신병원
9	여	23	대졸	종합병원 정신과

면담 시기는 2012년 6월 10일부터 2012년 6월 2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와 연구자가 서로 협의하여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였고 면담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횟수는 참여자별로 1-2회 실시하였으며 1회 면담에서 소요된 시간은 2시간내외였다.

면담초기에는 참여자에게 “수련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수련경험에서 스트레스적 상황은 무엇인가?”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가지고 참여자가 직접 진술하도록 하였다. 참여자가 직접 진술한 질문문을 보면서 면담을 시작하고 면담이 진행되면서 참여자의 진술을 따라가며 다양한 후속 질문을 사용하여 참여자로부터 생생한 경험을 풍부하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참여자의 표정이나 어조 등 상황적 특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현장기록 노트에 기록하여 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할 때 참고로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면담한 자료를 필사한 후 필사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 번을 읽으면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다시 참여자와 이차 면담에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진술이 더 이상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자료 수집을 중단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 편견 등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경험한 현상 자체에 충실할 때 연구의 객관성이 유지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를 명시하여 자료의 수집부터 분석, 기술하는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선 이해와 참여자들의 수련 경험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의 생각을 판단 중지하려고 민감하게 노력하였다[15][16].

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신보건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수련생의 수련경험과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하여 [17]Colaizzi가 제시한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진술에서 어조나 억양 등을 통해 전달되는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녹음테이프를 들으며 필사본을 반복하여 읽었다.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진술부분을 밑줄을 그으면서 그 의미를 탐구하였다. 둘째, 수련생의 수련경험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연구자가 재 진술하였다. 셋째,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연구자가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형태로 의미를 구성하였다. 넷째,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theme), 주제묶음(theme clusters)으로 범주화하였다. 그 후 주제들이 참여자가 진술한 원 자료들과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였다. 다섯째,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히 기술하였고 본질적 구조를 구성하였다. 여섯째, 분석결과를 참여자에게 보여 주어 참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일곱째,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과 현상학적

분석 결과를 참여자가 진술한 경험과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 결과를 질적 연구경험이 풍부한 교수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기간 내내 선 이해, 가정, 편견 등을 배제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3. 윤리적 고려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로부터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개별면담과 그룹 토의 내용을 녹음하고 참여관찰을 기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녹음된 테이프와 기록은 연구 종료 후 반드시 파괴하기로 약속하였다. 토의 내용은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연구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렸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고서 인용문이나 본문에서 참여자의 신상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자료 혹은 표시는 삽입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의 동의를 얻었다.

III. 연구 결과

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수련과정에 대한 스트레스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원자료로 돌아가 현상학적인 반성을 하였다. 참여자가 말한 내용 중 의미 있는 진술은 약 85개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연구자가 구성한 의미는 32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구성을 통해 9개의 주제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다시 4개의 주제묶음으로 수련과정에서 스트레스적 상황과 경험의 본질적인 주제로 분류하였다.

1. 대인관계가 어렵다

먼저 참여자들이 진술한 수련스트레스 경험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구체적인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계급적 상황, 수련동기와의 갈등을 구조화할 수 있었다.

1.1 계급적 상황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에서 겪게 되는 수련스트레스 경험으로는 계급적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이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했거나,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련생으로서의 대인관계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선생님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수련생으로서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수련생이라는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오는 긴장의 연속 그리고 수련기관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속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수련생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이 수련하는 기관의 직원을 '높으신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수직적 관계속에서 수련생의 역할모호를 경험하게 되면서 스트레스적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계급적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높으신 선생님과과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수련생에 대한 편견, 선생님 기분 맞추기 등으로 표현되었다.

선생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지나쳐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정도로 힘들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나보다, 나를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를 뺏은 것 같다고... 주로 혼자 생각하면서 힘들어 하고, 다른 친구 만나서 속상해서 운적도 있었고... (참여자 4)

일주일에 한번씩 가는 자원봉사자와 수련생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수련생은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선생님들이 저에게 많이 기대를 하게 되고, 나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되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참여자 1, 5, 9)

제일 높으신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면 사회사업실 전체가 기분이 안 좋은거예요. 그러면 수련생들이 선생님들 기분 맞추어줘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실장님한테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수련생들이 실장님 신경 안 쓰시게 저희가 조심하게 되고, 기분을 맞추려고 해요... (참여자 2)

1.2 동기와의 갈등

참여자들은 수련동기와의 갈등이 수련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련기간동안 동기와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수련동기의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동기간의 지나친 경쟁심리, 서로 다른 스타일 등이 동기와의 갈등관계를 야기시키며,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경우 수련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수퍼바이저나 수련기관의 직원이 수련동기와 같은 학교출신일 경우 학연으로 인한 배제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말을 하면 자기를 무시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잘 안 해요. 나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혼자서 삭히고 하는데, 자기는 성질나면 나한테 성질난다고 다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참여자 8)

저희는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아침스케줄이 의사선생님과 하는게 많거든요. 외국스케줄에 참여 하다보면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딴 짓하고, 집중을 잘 안해요. 사회사업실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신경쓰이는거예요. '그런 행동하지마'라고 말하고 싶은데.. 기분상하면 계속 맘이 안 좋으니까 말을 안 하게 되죠. (참여자 4)

저는 같은 학교가 두 명이고 저 혼자서 다른 학교출신이에요. 교수님께서 넘겨주신 자료가 많나 봐요. 저는 일일이 다해야 하고,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 거리고, 자료는 둘이서만 공유한다거나... (참여자 7)

2. 수련 일정이 빡빡하다

참여자들은 빡빡한 수련일정을 수련경험의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빡빡한 수련일정으로는 케이스 완성에 대한 압박, 케이스 선정에 대한 어려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분류되었다.

2.1 케이스 완성에 대한 압박

참여자들은 수련기간동안 케이스 완성에 대한 압박이 수련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한적인 시간내에 정해진 케이스를 완성해야 하고, 시간에 쫓기듯 클라이언트에게 취조하는 식의 질문을 하거나, 라포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케이스에 대한 압박... 케이스를 완성해서 제출일이 다가

오면, 환자를 만나서 취조하듯이 질문해야 되고,, 케이스 완성에 대한 압박감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에 쫓기 듯이 완성해야 되고... (참여자 5)

제출일이 다가오면 환자와의 라포형성도 하기도 전에 급하게 면담하게 되고, 제출은 하지만 결국에는 수정할 부분이 많으니까 다시 환자에게 질문을 계속하다보면 라포형성은 커녕 관계가 더 안 좋아지니까 더 이상 질문도 할 수 없고... (참여자 2, 3, 9)

2.2 케이스 선정에 대한 어려움

참여자들은 케이스 완성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케이스를 선정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케이스의 부족으로 인한 수련생들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도 심한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힘들게 선정된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퇴원을 하거나, 반복적인 질문에 대한 보호자의 항의와 이로 인한 환자와의 관계악화가 스트레스로 인식되고 있었다.

저희 병원은 케이스 대상자 선정부터가 힘들거든요. 선생님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신데 실제 대상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분한테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기를 원하시는데, 대상자분은 '이런 것도 해야 되요, 이런 말도 해야 되요.'라고 물으시면 할말이 없어요. (참여자 5, 8)

우리가 한 케이스를 두고 수련생들간에 서로 경쟁을 해야되는게 힘들어요. (참여자 1)

그리고 입퇴원이 빠르다보니 케이스를 해도 급하게 해야 되고,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황당하죠. (참여자 4, 9)

보호자면담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질문을 하면 보호자분은 '이런 말도 해야 되느냐, 왜 자꾸 꼬치꼬치 캐묻느냐'고 도리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여자 4)

2.3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부족

참여자들은 수련기간 동안 자신들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기관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의 숙련을 원하는데 이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면담기술로 인한 제한된 정보수집과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경험하면서 심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련일정이 힘들다보니 전문적

인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만한 시간적 여유의 부족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많고, 케이스 완성을 위해서는 차근차근 면담을 해야 하는데 막상 면담을 하다보면 면담을 원만하게 이끌어나가지 못할 때, 면담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참여자 2)

치료계획을 세울 때도 아는 게 없으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를 모를때... 나 자신이 미워요.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는 부분에 딱 부딪힐 때 이것도 모르나 하는 생각에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때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8, 9)

자원봉사 때 몰랐는데 '어, 선생님 이것도 못했네요', '이것도 모르세요?' 라고 말을 하면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에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고... (참여자 6)

3. 기관에서 수련생에 대한 배려가 없다

참여자들은 기관에서 수련생에 대한 배려가 없음으로 인해 수련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업무가 과중하다, 수련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로 분류되었다.

3.1 업무가 과중하다

참여자들은 업무과다를 수련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련기관의 수련생의 역할이 모호할 정도로 과다한 잡무로 인한 업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수련교육과정에서 수련생이 습득해야 할 전문직의 교육내용 외에 수련생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대치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과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병원이나 수련 일정이 대개 많은거예요. 사회사업실 업무 외에도 의국스케줄에 다 참여해야 되고, 처음에는 많이 배울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제는 사회사업실 업무가 많은 상태에서 다 참석하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는거예요. 내 할 일이 계속 밀리니까... 스트레스죠. (참여자 4)

저희 기관은 열린 공간이라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저희들만의 공간이 없어요. 프로그램도 다 참여해야 되고, 식품부가 되다보니 음식을 만들거나 모든 게 생활이 되

어 있어요. 점심시간에도 시간을 쪼개서 면담도 해야 하고.. 쉬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체력이 바닥나는 게 너무 힘들죠. 아웃팅을 갔다오면 또 서류준비, 기록 등 밀린 업무를 계속 처리해야 하니까 전혀 쉬고 싶은 할 수 없죠. 공간은 좁고, 일은 많고... (참여자 7)

3.2 수련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참여자들은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생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수련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수련생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없다보니 경제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타 부서의 수련생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기관 내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위치에서 수련을 하고 있었다. 또한 수련생들을 위한 쉼 공간이 따로 배정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일주일 내내 수련병원에 출근해야 되고, 차비 및 식비 지원도 없고, 부모님께 책값지원, 교통비 및 식비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가족들 보기가 미안하고 죄송스럽죠. (참여자 8)

저희가 병동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수련생들은 병동 면담을 많이 하라 하거든요. 면담하러 병동갈 때마다 문 열어주시는 기사님이 짜증을 많이 내시고... 저희일정이 있는데 'pk나갈 때 같이 나가자, 왜 따로 나가서 사람 귀찮게 하느냐'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요. 눈치보여서 못나갈 때도 있어요. 수련생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참여자 4, 9)

주 3일 가고, 워낙 실습생들이 많이 오니까, 직원도 아닌 것이, 실습생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 눈치는 많이 보이고... 실습생 구분도 안되고... 기관에서 역할자체가 어정쩡한 편이죠. (참여자 3, 8)

4. 수련교육에 대한 체계성이 없다

참여자들은 수련교육에 대한 체계성이 없음에 수련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수련교육의 체계성부족에는 체계적인 수퍼비전이 없다, 수련생 관리가 안 된 다로 분류되었다.

4.1 체계적인 수퍼비전이 없다

참여자들은 수련생이 배워야 하는 관련지식과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수퍼비전이 없는 것을 수련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흥적인 과제부여와 부정적인 수퍼비전, 수시로 변경되는 수퍼비전 일정 등이 수련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관차원에서 수련생 교육체계에 대한 시스템과 구조화가 갖추어지지 않고 수련생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수련생의 입장에서는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의 내용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수 있고, 이런 경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련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수퍼바이저께서 갑자기 과제를 내줄 때가 종종 있어요. 병원에 한번 들어가면 며칠씩 못나오는데 자료찾는 것도 힘들고, 케이스 일정 맞추기도 힘든데 과제를 수시로, 갑자기 내어주시면 당황스럽죠. 시간을 충분히 주시지 않고 과제를 갑자기 내어주시면 힘들죠. (참여자 1)

프로그램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되면 한 두번의 평가모임을 가지고 수퍼비전을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수퍼비전이 없어요. (참여자 5)

선생님께서 이번 주에 이런 이런 일을 하자 라고 미리 정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하거든요. 그날이 되어서 '오늘 이거하는 날인데요' 하면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이걸 다음에 하자 라고 말씀하세요. 스테디 하자고 해놓고도 선생님이 바쁘셔서 그냥 넘어가버리고 하니깐 우리도 긴장이 풀어져서 할 생각을 안 하게 되는거죠. 점점 나태해지고, 스테디를 해도 안 봐주시니까 안하게 되고, 선생님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공부를 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동기가 점점 떨어져요. (참여자 3)

4.2 수련생 관리가 안 된다

참여자들은 수련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소홀을 수련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련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련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련을 하고 있었으며 수련교육과 수련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수련일정이 수련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지부와 중앙학회간의 상호논의가 부족하였고, 수련기간동안의 전체적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일정에 대한 중앙협회와 지부의 사전협의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련계획을 세우는데 구체성이 떨어지게 되어 수련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련이론교육을 하는데, 수련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 없이 수련을 시작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수련이 시작된거예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집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퇴원계획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아는 게 없이 수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참여자 2, 5)

수련생들을 위한 이론교육은 주로 중앙에서 하잖아요. 근데 서울은 보통 4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때가 많다고 하대요. 수련시작과 함께 이론교육이 이루어지니까 일정잡을 때 오리엔테이션과 일정이 거의 비슷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OO(지역)은 수련이 12월부터 기관별로 다 다르거든요. 1급 시험치고 발표나면 3월인데, 혹시 떨어지면 수련을 또 포기해야 되요. 1급 발표 나고 나서 수련이 시작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지부는 수련이 그 전에 이루어지는데 수련생에 대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과 전체적인 교육없이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련생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들어요. (참여자 6, 7, 8)

I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생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수련스트레스를 수련생의 입장에서 기술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임상교육의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수련생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포커스그룹으로 1-2회 이루어졌으며, 소요시간은 2시간 내외였다. 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의미있는 진술은 85개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연구자가 구성한 의미는 32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구성을 통해 9개의 주제가 형성되었으며 4개의 주제 묶음으로 수련과정에서의 스트레스경험을 도출하였다. 즉, 수련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경험은 대인관계가 어렵다, 수련일정이 빡빡하다, 기관에서 수련생에 대한 배려가 없다, 수련교육에 대한 체계성이 없다는 4개의 주제 묶음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가 어렵다에는 '계급적 상황', '동기와의 갈등'의 주제로 나타났다. 수련생들은 자신의 수퍼바이저와의 관계 형성, 수련생과 수퍼바이저와의 계급적 위

계상황을 스트레스적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슈퍼바이저로부터의 인정받고자 하는 동료들의 갈등과 역할혼돈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수련생을 배려하지 못하는 조직적 특성도 수련스트레스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수련일정이 빡빡하다에서는 ‘케이스 완성에 대한 압박’, ‘케이스 선정에 대한 어려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업무내용과 업무량 처리에 대한 부담은 업무의 질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기록,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수집과정의 부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자존감의 저하와 자기역량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기관에서 수련생에 대한 배려가 없다에서는 ‘업무가 과중하다’, ‘수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의 주제로 나타났다. 수련생 교육과정을 위해 기관 차원의 조직적 사회화가 전문직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13]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수련생들은 타 부서의 수련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인식의 부재로 인해 수련과정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수련에 대한 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련교육에 대한 체계성이 없다에서는 ‘체계적인 슈퍼비전이 없다’, ‘수련생 관리가 안된다’의 주제로 나타났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배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수련교육은 슈퍼비전을 통해 전문직 사회화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바이저인 수련생을 교육·훈련함으로써 전문가로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다. 따라서 슈퍼바이저는 수련생이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돕는 책임을 가지고 체계적인 슈퍼비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수련생이 임상 및 교육수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수련생들이 수련과정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요소 중에서 전문가 등 다양한 체계의 사람들과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수련과정이 전문가로 성장하는 의미있는 교육과 훈련과정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련생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TA교육, 단기해결중심의 상담기법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수련과정에서 수련생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기관 내 부서와 수련생들이 역할수행에 대해 충분히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차원에서의 노력은 수련생 교육과정을 공식화, 구조화시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련생 교육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직원을 교육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부서별 상호준중과 협력관계 속에서 수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와 같이 질적연구방법을 통해서 나타난 자기역량부족, 기관 내 소외 등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자존감 저하 등을 개별적으로 사정하여 정도가 심한 경우의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련과정에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와의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교육을 정규화하여 슈퍼비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련생을 지도하는 슈퍼바이저와 수련생인 슈퍼바이저와의 관계는 슈퍼비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슈퍼비전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 수련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학습도 촉진되어 전문직의 정체성 확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슈퍼바이저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수련교육 과정에 슈퍼비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수련생교육에 있어서 수련생을 개별화한 슈퍼비전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개별슈퍼비전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은 조사대상자들을 부산·경남, 대구·경북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상황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적연구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에 대한 수련생의 스트레스를 이해함으로써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양성하는 전문직 수련교육의 체계적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후속연구로는 수련생의 스트레스 관리와 대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www.kamhsw.or.kr/, 2013.
- [2] 공선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7, 2002.
- [3] 박정원, 하나선,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경험”, *정신간호학*, 제12권, 제1호, 2003.
- [4] 안희남, *간호학생이 정신간호학 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5] 반희량, *정신의료사회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임상수련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6] A. Rosenblatt and D. Waldfoegel, "Handbook of Clinical Social Work," San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p.347, p.1083.
- [7] 이영호, 심경순,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06.
- [8] 김주리, *사회사업실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1-12, 1992.
- [9]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지침서”, 2012.
- [10]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www.kamhsw.or.kr/, 2012.
- [11] 정신보건법, “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 제2조”, 2008.
- [12] 박미은, “정신보건 수련사회복지사가 경험한 클라이언트 폭력의 실태”, *사회복지연구*, Vol.30, 봄호, pp.159-183, 2006.
- [13] 이슬비,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전문직 사회화가 전문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14] 공선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82-83, 2002.
- [15] 심경순,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

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308, 2012.

- [16] 심경순, “지역사회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강점 실천 경험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복지학*, p.173, 2012.
- [17] F. U.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In R. Valle & M. King(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pp.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저 자 소 개

심 경 순(Kyung-Soon Shim)

정희원



▪ 2002년 9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정신보건, 장애인복지